

체험 수기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

# 강남성모병원 Hospice Center

“호스피스 병동은 남은 여생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돌봄을 받는 곳……, 그리고 나는 호스피스를 통해 삶이 평온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때 무한히 행복하다.”

6년 전 6월, 주일 미사에 참여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렸다. 전날 밤에 지방에 계신 친정 아버님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님께서 임종이 임박했다는 전갈이었다. 황급히 서울역을 향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 계시기를 간곡히 기도 드리며, 오후 6시경에 친정 집에 도착했다. “아버님, 큰딸이 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5년 동안의 투병 기간을 잘 견디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 아버님을 위해 선종 기도를 바쳤다. 1시간 후, 7시경... 친정 아버님께서서는 큰 딸인 나의 품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 나라에 가셨다.

친정 아버님의 선종을 보면서 결코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하기 전에는 성서를 통한 부활의 의미를 깨



최 영 숙(테레사)  
자원봉사자

닫지 못했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 내지 못한 채 ‘미지의 날에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 술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과 죽음의 마지막 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보, 신문, 호스피스에 관련된 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약 8년 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것이 봉사의 첫 시작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호스피스를 통해 그 간 많은 환우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다고 기보다는 그분들을 통해 인생에서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특히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환우와의 만남이 많았지만 한 두 경우를 회상해 보고자 한다.

후두암 말기의 40대 중반인 이(李)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늘 혼자였다. 후두암의 특성상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던 탓에 외로움은 더한 것 같았다.

이씨가 앞으로 더 나빠지면 전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간 살던 집으로 외출하여 마지막 정리를 하고 오는 게 좋겠다는 담당 수녀님의 권고를 듣고 나는 이씨를 동반하여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가 살았던 반 지하 단칸방은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방에는 특별히 색다른 것은 없었으나 7~8인용 붉은색 전기 밥솥에는 이미 노랗게 변해버린 밥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짐작하건대 이씨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밥을 많이 해 놓았던 것 같다. 내가 울컥하는 심상을 감추고 이미 상해버린 그 밥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을 때, 이씨는 이층에 사는 집주인의 어린 손녀에게 천 원짜리 지폐 하나를 건네 주고 있었다. 나는 이씨의 건강상태를 집주인에게 전해주며 전세금 정리를 부탁했다. 집주인은 이씨가 그렇게 나쁜 상황인지는 몰랐다고, 혼자 살면서 워낙 말썹이 없으시고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 집을 나와 휴대폰 해지, 예금해약 등 사후를 생각한 작은 일들을 정리한 후 해가 서산에 매달렸을 때 즈음에야 병원으로 돌아왔다.

이씨는 20여 년 전 아들, 부인과 헤어져 혼자 줄곧 살아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틈틈이 모아 둔 돈을 헤어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지방에 살고 있던 아들과 처가 식구들이 이씨를 모시고 부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또 다른 사례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 20대 초반의 외동 딸이 울면서 “아줌마 무서워요. 무슨 노래라도 좀 해주세요.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

던 가요라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마리아 씨(그녀의 엄마)의 시신 앞에서 나와 다른 봉사자들은 성가와 함께 가요를 불렀다. 그 딸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얼마를 불렀는지…….

시신 앞에서 가요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이곳 호스피스 병동 말고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병동에서의 환자와 보호자, 봉사자들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리아 씨는 딸과 함께 둘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선종하기 얼마 전 내가 마리아 씨의 세례를 위해 대모를 서게 되었으며, 마리아 씨 선종 후 딸도 교리를 받고 영세하여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

또한 우리 봉사자가 하는 일 중에는 사별가족 분들에게 사별 후 50일이 되면 엽서를 띄우고, 안부 전화를 한다. 전화 걸기 전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사 하고 청원기도를 드린다.

“강남 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자원 봉사자입니다.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전화 올렸습니다.” 하면 그 반응이 여러 가지다. 잊을 만하면 편지 오고 전화한다고 싫은 목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든데 잊지 않고 전화까지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람도 있다.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환우는 모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더 할 나위 없는 슬픔이다. 때로는 혼자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들기도 한 것 같다. 누구에게나 찾아 오는 죽음, 그 때마다 찾아오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환자의 고통, 이들 고통과 두려움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고 함께하는 호스피스는 참된 하느님이시다. 늘 감


시신 앞에서  
가요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이곳 호스피스병동  
말고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45p에서 계속

요구된다.

- 사별 후의 케어 : 사별 후의 케어는 환자가 요양 중일 때부터 시작하며 대상은 가족 및 환자의 친우 등이다. 특히 병적으로 비탄 중에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절한 전문가를 소개한다.
- 질의 확보와 활동의 평가 : 제공된 의료와 케어의 평가와 재평가가 될 것, 팀의 이상적인 자세와 프로그램 전반의 재평가가 될 것, 평가, 재평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각 시설의 책임에 두고 행할 것, 당 연락협의회에 제 3자를 포함시킨 위원회를 만들 것 등이다. 위원회는 각 시설에 대한 케어의 '질의 확보와 활동의 평가'에 대해 검토한 다음에 권고를 할 수가 있다.
- 기준의 개정과 위원회의 설치 : 이상의 기준은 당 협의회 회칙 6조 1항에 따라 협의를 세워 개정을 행할 수가 있다. '질의 확보와 활동의 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따로 제정한다.


### 맺음말

이상 성마리아 병원의 호스피스병동 운영실태와 국가기준을 소개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담당이사 입장에서 제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의 양국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호스피스 진료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  
빈곤한 경우,  
특정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 등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38p에서 이어짐


셋째, 중앙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와 서비스의 질을 평가, 관리하며 지속적인 정책을 개발할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넷째, 호스피스를 종교단체의 선교운동으로 이해하여 접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교차원의 운동으로 하는 호스피스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는 의료문제이며 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시작하여 정착하여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 47p에서 이어짐

사를 드릴 뿐이고 봉사를 통해 자신도 큰 보람을 느낀다.

호스피스 병동이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죽기 직전에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돌봄을 받는 곳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나는 이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삶이 평온하고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때 무한히 행복하다.

끝으로 내일은 하느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호스피스의 정신인 '기다림'과 '돌봄'이 함께하는 이 곳,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는 하느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조금이나마 호스피스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예수님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런 아름다운 봉사의 장을 마련해주신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참고자료  
 세계보건기관편 : 암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제1판, 제2판)  
 후생성·일본의사회편 : 암 말기의료에 관한 케어 매뉴얼  
 세계보건기관전문위원회편 : 암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호스피스 케어